

# 별서명승의 개념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

이재근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A Meaningful Interpretation on Concept of Byeulseo Scenic Spot

Lee, Jae-Keu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eo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attempt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Byeulseo Scenic Spot that the definitions of Byeulseo and Scenic Spot would be presented first followed by clarifying the basis, reason and justification that Byeulseo would be called as Byeulseo Scenic Spot that the following is the major results formulated herein.

First, the concept of scenic spot under the Cultural Property Act is the reference to the famous site with the building improvement well known for its great scenery or the point where splendid scenery is viewed that has the artistic value along with the trace of human lives in this cultural heritage that, although the scenery is important but the attention has to be on discovery of historic resources with the story telling in the subject site.

Second, the criteria of designation on the Scenic Spot in Korea would be natural scenery, animal and plant site with well-known scenery, view point of scenery, famous building or garden and important places with legend that there lacks diversification. In this aspect, the intent of the concept of Scenic Spot would be facilitated to expand the designation of the Byeulseo Scenic Spot as the Scenic Spot of living style.

Third, from the foreign cases, particularly, in Japan, it is needed to note that Byeulseos and housing gardens are designated for 196 places of Scenic Spot, reaching 55.4% of entire Scenic Spots. Laws, regulations, systems and designated criteria on the cases of designating the foreign Scenic Spots would be studied and quoted.

Fourth, the classification work for each type to designate as cultural heritage has to be continued as the Scenic Spot of subject site with even more emerged for the value as the Scenic Spot in garden, original site and the like classified as historic site, important folk data and the like.

Fifth, the designation of Scenic Spot of Byeulseo garden with splendid scenery as the living Scenic Spot has to be expanded. The pavilion existed now nationwide would be approximately 1,500, and these pavilions are the place where the scholars stay in the famous site, and this is the central space of Byeulseo to study, and if there is clear one that has written and record of deed to create the stories to people with the value for publicity campaign, it would be the subject of Scenic Spot.

And sixth, for the case of view point with splendid scenery in Byeulseo Garden, it cannot be the subject of designation that the designation of Scenic Spot has to be expanded. In the event of the Byeulseo garden in Korea, there are many cases of having outstanding view points, and there is a few case of designating the subject site with great view point as a Scenic Spot.

*Key Words : Byeulseo, Scenic Spot, Concept, Designation*

† **Corresponding Author** : Lee, Jae-Keu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eong University, Anseo-dong 300, Cheonan-si, Chungnam 330-720, Korea. Phone : +82-41-550-5302, Fax : +82-41-567-4490, E-mail : jklee@smu.ac.kr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별서명승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서, 별서 및 명승의 정의를 먼저 제시한 후, 별서가 별서명승으로 불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 당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명승지정 기준은 3항에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5항에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 교육, 생활, 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를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덧붙여 우리 선조들이 별서공간에 대한 명승개념을 정의해 놓은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별서공간을 역사 및 생활명승으로서의 명승으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준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문화재법상 명승의 개념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이름난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으로서 경치도 중요하지만, 대상지의 담겨진 삶의 기록(Story Telling)인 역사자원을 발굴해 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명승에 대한 지정 기준은 자연경관, 저명한 경치가 있는 동식물군락지, 경관조망점,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명승으로서의 별서명승의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 사례 중 일본의 경우, 별서 및 주택정원을 명승으로 196개소나 지정하여 전체 명승 355개의 55.4%에 달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우리도 이들의 제도를 우리에게 맞게 원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명한 건물이나 중요 사적 및 민속자료 등이 포함된 대단위 경관지역은 복합문화명승이나 특별명승과 같은 개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적, 중요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된 정원, 원지 중에서 명승으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대상지의 명승으로의 문화재 지정종별 분류작업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생활명승이면서 경치가 아름다운 별서정원의 명승지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자들은 경승지에 선비들이 은일하며, 학문을 했던 별서의 중심공간으로서, 작정자가 분명하고 행장기록이 있어 국민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창출하여 홍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경우 명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별서정원에서 경치가 아름다운 조망점의 경우 지정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승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별서정원의 경우 조망점이 우수한 사례가 많고, 아직 조망점이 좋은 대상지를 명승으로 지정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제어 : 별서명승, 개념, 분류작업, 생활명승, 명승지정, 확대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재청은 1970년대 이후 2000년까지 7건의 명승을 지정해 왔으며, 이후 2010년 2월 현재까지 총 68건의 명승을 지정해왔다.

약 30년 동안 7건을 지정한 것에 비하면, 최근 10년간의 61건이라는 명승지정 실적은 그래도 괄목할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가 및 일반인들의 명승에 대한 생각은 명산, 협곡, 해협, 폭포, 호소, 바위, 동굴 등 경관이 빼어난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명승지정 기준은 3항에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5항에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 교육, 생활, 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를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덧붙여 우리 선조들이 별서공간에 대한 명승개념을 정의해 놓은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별서공간을 역사 및 생활명승으로서의 명승으로 지정해 나갈 수 있

는 준거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 완장리에 있는 별서공간 학천정과 마성면 신현리에 있는 봉생정,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에 걸쳐 있는 도암정의 정자기 및 시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현지답사를 통한 주변경관 분석과 시문, 정자기의 원문을 사진 촬영하여 번역하고, 의미론적 해석을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현지조사는 2008년 3월과 7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번역 및 의미론적 해석에 대해서는 2009년 10~11월, 한문학자 및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

## III. 이론적 고찰

### 1. 별서의 개념

별서란 주택에서 떨어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두루 섭렵하면서 승경과 우주의 삼라만상을 포근히 느낄 수 있는 경승지와 전원지에 조성한 별장, 또는 은일개념의 원유공간을 말한다. 별서의 기준은 정침(正寢)인 본체(本第)가 있어야 하고, 거리는 정침으로부터 대개 0.2~2km 정도 떨어져 위치한 곳으로서 도보권에 있어야 한다.

또한 건물은 누(樓)와 정(亭)으로 대표되고, 건물 내부에 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담장과 문이 없어 사방의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개방된 자연 그대로의 산수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은일형, 별장형, 별업형으로 구분된다.

### 2. 명승의 개념 및 지정 기준

#### 1) 명승의 개념

명승(名勝)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경승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정문화재의 종류 중 기념물에 해당된다. 문화재 지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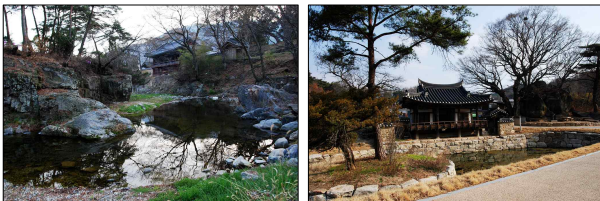


그림 1. 경북 포항시의 용계정      그림 2. 경북 봉화군의 도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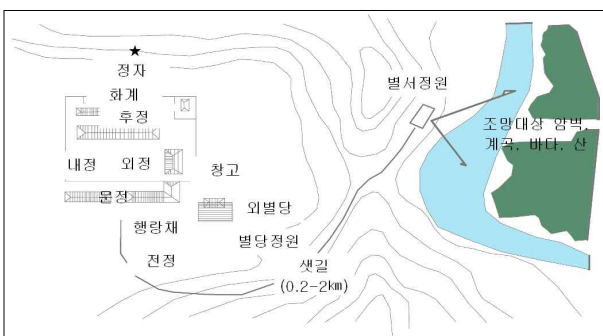


그림 3. 별서정원의 개념도

이름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화지(花地) 또는 이름난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으로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니고 있어 심미적 중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성과정에서 비롯된 고유성, 희귀성, 특수성 등을 보유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에서 명승은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 가치가 크고,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연적 경관이 아름다운 곳 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모든 문화예술 유적이 대상이 되고 있다(표 1).

#### 2) 명승의 지정 기준

(1) 각 나라별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지정 기준은 자연현상 위주의 면적(面積) 규모를 가진 명승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지정 기준을 삼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연현상 위주의 지정 기준과 면적(面積) 규모를 가진다.

(4) 일본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문화현상으로 지정 기준과 규모에 있어서도 면(面)적 개념과 점(占)적 개념을 동시에 가지는 지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

#### 3) 명승의 지정 현황

(1) 우리나라는 많은 귀중한 명승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정된 명승지는 68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 320개소, 일본 335개소(특별명승 35건), 중국 687개소(국가 명승지 187건, 지방 명승지 500건 포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 명승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근본을 지키고 선조의 예지가 결집된 민족의 얼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연유산과 민족문화의 표상으로 창출된 명승은 경관적 가치 외에도 그 시대의 사상과 배경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문화 창조와 발전을 위해서 명승을 지정하고 보호하여 후손에게 길이 전승하는 일은 민족의 긍지를 되새

표 1. 명승의 개념

나라	한국	중국	일본
명승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경승지</li> <li>· 자연적 경관뿐 아니라 문화예술도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 문화 혹은 과학적 가치, 자연 경관, 인문 경관 등이 비교적 집중적이며, 환경이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관광 혹은 과학, 문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구역 (2006. 12. 1 이후)</li> <li>· 사람들에게 관광 관람, 휴식이나 과학문화활동을 하도록 제공되는 지역(1985~2006. 11.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뛰어난 국토의 아름다움으로서 귀중한 것</li> <li>· 자연적인 것에 관하여 풍지경관이 뛰어난 것</li> <li>· 명소적 혹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li> <li>· 인문적으로는 예술적 혹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li> </ul>

표 2. 각 나라별 명승의 지정 기준

국가	한국	중국	일본
관련 규정 (지정 기준)	①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도서 등 ②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③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④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대(臺), 바위, 동굴 등 ⑤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원림·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⑥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그 경물의 관상, 문화, 과학가치와 환경가치, 규모크기, 관람조건 등에 따라 국가 중점 명승지(면적 : 10km <sup>2</sup> 이상), 성급 명승지, 시·현급 명승지의 세 가지 급으로 구분 ·지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 1. 풍경 자원 평가 2. 생태 자원 보호 조치 3. 중대한 건설 항목 배제 4. 강도의 개발 이용 5. 풍경 명승지의 기능 6. 구성과 공간 배치 7. 개발 금지와 개발 제한의 범위 8. 풍경 명승지의 유람객 용량 9. 유관 전문 항목 기록	1. 공원, 정원 2. 교량, 축대 제방 3. 화수, 화초, 단풍, 녹림목 등의 집단 서식 장소 4. 조수, 물고기, 곤충 등 서식하는 장소 5. 암석, 동혈 6. 협곡, 폭포, 계류, 심연 7. 호소, 습지, 부도, 용천 8. 사구, 사막, 해변, 도서 9. 화산, 온천 10. 산악, 구릉, 고원, 평원, 하천 11. 전망지점

기고 전통을 계승·선양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국민의 문화인식 제고와 창조적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서, 이제 명승자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존 관리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3) 명승을 지정한 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1980년까지 5개소가 지정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2개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개소로 35년간 15개소로 저조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명승 지정이 활발해져 2006년 4개소, 2007년 11개소, 2008년 21개소, 2009년 16개소, 2010년 1개소 등 2006년 1월~2010년 2월까지 53개소가 지정되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 IV. 별서명승의 개념 및 지정현황

#### 1. 별서명승의 정의

1) 별서명승이란 제택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생활공간을 이루고 있는 정자를 중심으로 한 별서공간으로서 경치가 특별히 아름답거나 관상가치가 있고,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생활경승지를 말한다.

2) 별서명승으로서의 조건은 조영자에 대한 생활 기록이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며, 바라보이는 경치가 고유성, 희

귀성, 심미성, 특수성 등을 보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치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사람이 기거하고, 흔적이 있을 때 비로소 경치가 돋보이고, 경승의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제에서 떨어져 건물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의 형태와 훌륭한 경치를 갖추고 있는 승경지를 특별히 별서명승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 2. 별서명승의 지정현황

별서명승은 2006~2008년까지 2006년 11월 16일 예천 선봉대 일원 255,253m<sup>2</sup>이 지정된 이래, 2007년 12월 7일 순천 초연정 일원 66,441m<sup>2</sup>, 안동 백운정 및 개호동숲 일원 238,822m<sup>2</sup>이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월 8일 서울 성락원 14,407m<sup>2</sup>, 백석동천 50,861m<sup>2</sup>, 보길도 윤선도 원림 480,728m<sup>2</sup>이 지정되었다.

또한 2008년 5월 2일 전남 소쇄원 108,531m<sup>2</sup>, 경북 초간정 12,979m<sup>2</sup>과 구미 채미정 56,603m<sup>2</sup>이 2008년 12월 26일 지정되는 등 9개소가 지정되었다.

별서명승은 2009년에는, 2009년 9월 18일 담양 식영정 일원 28,039m<sup>2</sup>과 명옥헌 원림 13,484m<sup>2</sup>이, 2009년 12월 9일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232,595m<sup>2</sup>, 양양 하조대 134,825m<sup>2</sup> 등 4개소가 지정됨으로써, 2006~2009년 사이 총 13개소가 지정되어 전체명승 68개소의 19.1%에 이르게 되었다.

표 3. 명승의 지정현황

연번	종목	명칭	지정면적(m <sup>2</sup> )	지정일	분류	별서명승
1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의 소금강(溟州 靑鶴洞의 小金剛)	23,971,684	1970. 11. 23.	계·폭	
2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巨濟 海金剛)	223,992	1971. 02. 23.	해안	
3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의 구계등(莞島 正道里의 九階燈)	152,925	1972. 07. 24.	해안	
4	명승 제6호	불영사 계곡 일원(佛影寺 溪谷 一圓)	17,835,806	1979. 12. 11.	계·폭	
5	명승 제7호	상백도 하백도 일원(上白島 下白島 一圓)	3,227,745	1979. 12. 11.	도서	
6	명승 제8호	백령도 두무진(白翎島 頭武津)	1,923,712	1998. 12. 30.	도서	
7	명승 제9호	진도의 바닷길(珍島의 바닷길)	3,854,692	2000. 03. 14.	해안	
8	명승 제10호	삼각산(三角山)	274,143	2003. 10. 31.	산악	
9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靑松 周王山 周王溪谷 一圓)	8,368,056	2003. 10. 31.	계·폭	
10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鎭安 馬耳山)	206,423	2003. 10. 31.	산악	
11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扶安 彩石江·赤壁江 一圓)	341,378	2004. 11. 17.	해안	
12	명승 제14호	영월 어라연 일원(寧越 魚羅淵 一圓)	1,677,824	2004. 12. 07.	계·폭	
13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南海 加川마을 다랑이논)	227,554	2005. 01. 03.	역·문	
14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醴泉 回龍浦)	790,864	2005. 08. 23.	하천	
15	명승 제17호	부산 태종대(釜山 太宗臺)	1,640,063	2005. 11. 01.	해안	
16	명승 제18호	소매물도 등대섬(小每勿島 燈臺섬)	217,950	2006. 08. 24.	도서	
17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醴泉 仙夢臺 一圓)	255,253	2006. 11. 16.	역·문	◆
18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	211,038	2006. 12. 04.	역·문	
19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889,306	2006. 12. 04.	수계	
20	명승 제22호	영광 법성진 숲쟁이(靈光 法聖鎭 숲쟁이)	27,397	2007. 02. 01.	역·문	
21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奉化 靑涼山)	4,090,322	2007. 03. 13.	산악	
22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釜山 五六島)	28,189	2007. 10. 01.	도서	
23	명승 제25호	순천 초연정 원림(順天 超然亭 園林)	66,441	2007. 12. 07.	식생	◆
24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安東 白雲亭 및 開湖松 숲 一圓)	238,822	2007. 12. 07.	식생	◆
25	명승 제27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흥련암(襄陽 洛山寺 義湘臺와 紅蓮庵)	74,593	2007. 12. 07.	역·문	
26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三陟 竹西樓와 五十川)	37,321	2007. 12. 07.	수계	
27	명승 제29호	구룡령 옛길(九龍嶺 옛길)	23,600	2007. 12. 17.	역·문	
28	명승 제30호	죽령 옛길(竹嶺 옛길)	151,115	2007. 12. 17.	역·문	
29	명승 제31호	문경 토끼비리	43,067	2007. 12. 17.	역·문	
30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3,768,307	2007. 12. 17.	역·문	
31	명승 제33호	광한루원(廣寒樓苑)	69,795	2008. 01. 08.	역·문	
32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甫吉島 尹善道 園林)	480,728	2008. 01. 08.	역·문	◆
33	명승 제35호	성락원(城樂園)	14,407	2008. 01. 08.	역·문	◆
34	명승 제36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서울 付岩洞 白石洞天)	50,861	2008. 01. 08.	역·문	◆
35	명승 제37호	동해 무릉계곡(東海 武陵溪谷)	1,534,669	2008. 02. 05.	계·폭	
36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長城 白羊寺 白鶴峰)	584,364	2008. 02. 05.	계·폭	
37	명승 제39호	남해 금산(南海 錦山)	559,782	2008. 05. 02.	산악	
38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潭陽 瀟灑園)	108,531	2008. 05. 02.	역·문	◆
39	명승 제41호	순천만(順天灣)	3,015,859	2008. 06. 16.	해안	

표 3. 계속

연번	종목	명칭	지정면적(m <sup>2</sup> )	지정일	분류	별서명승
40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忠州 彈琴臺)	289,492	2008. 07. 09	해안	
41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濟州 西歸浦 正房瀑布)	10,529	2008. 08. 08	계·폭	
42	명승 제44호	단양 도담삼봉(丹陽 島潭三峰)	178,232	2008. 09. 09	수계	
43	명승 제45호	단양 석문(丹陽 石門)	4,982	2008. 09. 09	수계	
44	명승 제46호	단양 구담봉(丹陽 龜潭峰)	159,667	2008. 09. 09	산악	
45	명승 제47호	단양 사인암(丹陽 舍人巖)	5,950	2008. 09. 09	수계	
46	명승 제48호	제천 옥순봉(堤川 玉筍峰)	178,232	2008. 09. 09	산악	
47	명승 제49호	충주 계림령로 하늘재(忠州 鷄立嶺路 하늘재)	397,478	2008. 12. 26	역·문	
48	명승 제50호	영월 청령포(寧越 淸冷浦)	204,241	2008. 12. 26	해안	
49	명승 제51호	예천 초간정 원림(醴泉 草澗亭 園林)	12,979	2008.12.26	역·문	◆
50	명승 제52호	구미 채미정(龜尾 採薇亭)	56,603	2008.12.26	역·문	◆
51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居昌 搜勝臺)	7,396	2008.12.26	계·폭	
52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高敞 禪雲山 兜率溪谷 一圓)	954,778	2009.09.18	산악	
53	명승 제55호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茂朱九千洞 一土臺 一圓)	51,922	2009.09.18	산악	
54	명승 제56호	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茂朱九千洞 巴迴·水心臺 一圓)	53,280	2009.09.18	역·문	
55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潭陽 息影亭 一圓)	28,039	2009.09.18	역·문	◆
56	명승 제58호	담양 명옥헌 원림(潭陽 鳴玉軒 園林)	13,484	2009.09.18	역·문	◆
57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海南 達摩山 美黃寺 一圓)	4,619,039	2009.09.18	역·문	
58	명승 제60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봉화 靑巖亭과 石泉溪谷 )	232,595.82	2009.12.09	역·문	◆
59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俗離山 法住寺 一圓)	18,464,375.92	2009.12.09	역·문	
60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伽倻山 海印寺 一圓)	20,952,454	2009.12.09	역·문	
61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扶餘 구드래 一圓)	2,519,062.67	2009.12.09	역·문	
62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智異山 華嚴寺 一圓)	2,585,252	2009.12.09	역·문	
63	명승 제65호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曹溪山 松廣寺·仙岩寺 一圓)	22,340,612	2009.12.09	역·문	
64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頭輪山 大興寺 一圓)	8,670,416.15	2009.12.09	역·문	
65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白岳山 一圓)	3,598,127	2009.12.09	역·문	
66	명승 제68호	양양 하조대( 河趙臺)	134,825	2009.12.09	역·문	◆
67	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10,526	2009.12.09	해안	
68	명승 제70호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春川 淸平寺 高麗禪園)	1,091,247.15	2010.02.05	역·문	

주: 당초 명승 4호인 송광사, 선암사 일원과 5호 대흥사 일원은 1998년 사적 및 명승 8호, 9호로 변경됨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명승목록에서 제외하였음. (◆ 별서명승)

## V. 관련시문 및 별서명승의 의미론적 해석

### 1. 이재 선생의 후손 이기용의 학천정기

#### 1) 학천정기 원문 및 해석

地以山水勝，而有時乎顯晦。故程夫子修稷於洛社而洛社顯，紫陽子權歌武夷而武夷顯。向使洛社武夷不遇兩夫子則只是古今一壑而已。至於我東，石潭遇栗翁顯，華陽得尤翁顯。

……至我陶菴先生而顯，於是爲藏修之遊息之，使從弟知菴公 起數椽扁之 以屯山精舍，堂曰惺心，…… 吾道之以隆 山水因之而顯矣。

이재 선생은 학천정의 건립 경위와 중수 과정을 소상하게 밝혔으며, 특히 산수의 아름다움이 인간에 의해 더욱 아름다워지고 오래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땅은 산수에 의해 아름다워지지만, 때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낙사(洛社)에서 수계(修稷)를 개최하여 낙사가 드러나게 되었고, 주자(朱子)가 무이

구곡에서 뱃노래를 부르자 무이구곡이 드러났다. 만약 낙사와 무이구곡이 두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골짜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석담(石潭)은 울곡을 만나 드러났고, 화양동은 우암을 만나 드러났다.…… 우리 도암(陶菴) 선생에 이르러 이곳이 드러나게 되어 학습하고 노니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종재인 지암공(知菴公)을 시켜 조그만 집을 짓게 하여 둔산정사(屯山精舍)라 이름 붙이고 당호를 성심(惺心)이라 불렀다.……우리의 도(道)가 응성하여졌고, 산수는 이것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다.

2) 의미론적 해석

“땅은 산수에 의해 아름다워지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피력한 것과, “정자가 낙사에서 수계를 개척하여 낙사가 드러나게 되었고, 주자가 무이구곡에서 뱃노래를 부르자 무이구곡이 드러났다. 만약 낙사와 무이구곡이 두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골짜기에 불과했을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명승이란 사람이 기거하고 생활해야 명승으로서 빛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한 것으로, 이러한 사람의 흔적이 물썬 풍기는 별서지역의 승경지를 별서명승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히 “만약 낙사와 무이구곡이 정자와 주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골짜기로밖에 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대목은 별서공간이 사람의 활동이나 체취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진정한 경치가 빛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인 것이다.

2. 송병준(淵齋 宋秉濬)(1836~1905)의 학천정 누정기

1) 학천정누정기 원문 및 해석

龍湫注其上，鶴臺屹其下。山林泉石，已非凡境，況被先生所過之精彩乎。於是仙遊之景，盡爲精舍之有，而擅名于南州。世之游賞者，靡不欲窮源乃已

“용추가 그 위를 흐르고, 학이 앉을 수 있는 대가 그 아래 우뚝하다. 산수 자연은 이미 평범한 경지가 아닌데, 하물며 선생이 노닐던 정기와 흔적이 보래졌음에야 그 경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여 선유동의 경관은 모두 둔산정사를 위해 존재하면서 남쪽 지방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따라서 세상의 유람자들은 자연경관의에도 그 근원을 찾아 발길이 그치지 않았다.

2) 의미론적 해석

1) 이 누정기에서는 학천정의 산수자연이 평범한 경치가 아닌데다가 선생이 머물며 지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욱 빛났고, 세상의 유람자들이 선생을 찾아오므로써 아름다운 경치가 더

욱 빛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피력한 것으로 이 또한 사람이 찾아오고 왕래하는 명승지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명승이라는 별서명승의 귀중한 뜻을 담고 있다.

2) 학천정 주변 선유동 구곡은 경치가 아름다운 명승지이지만, 이제 선생의 학천정이란 별서건물과 공간이 있음으로써 더욱 경치가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서 이곳이 역사, 생활명승으로서의 별서명승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복(2002년)의 봉생정중건상량문

1) 봉생정중건상량문 및 원문해석

夙聞鳳笙之爲別界 欲翫賞於這裡  
每與愚伏之最高第 常逍遙於其中  
厥後亭樹翼然以起於斯  
自此地氣燦然有培於昔

봉생정 중건 상량문 중간 부분에서 서애 선생은 별세계와 같은 산수 자연 속에서 정자를 짓고 수제자와 함께 소요하였으니 땅의 기운이 찬란하게 빛났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찍이 봉생이 별세계란 소문을 듣고 여기에서 자연을 즐기며, 매번 우복 같은 최고의 제자와 더불어 언제나 그 속에서 소요하려고 했다. 그 후 이곳에 날개를 펼친 듯한 정자가 세워지니, 이때부터 이 땅의 기운이 옛날 보다 두 배나 더 빛났네.

2) 의미론적 해석

이상 봉생정의 <상량문>을 보면, 이 정자는 서애 선생이 봉생의 별천지와 같은 자연 경관 속에서 정자를 짓고 제자들과 소요하려는 생각에서 지어진 것으로, 이 땅이 경치도 경치지만, 정자로 인해 더욱 유명해졌고, 아름다운 경치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鳳笙亭垣牆新築記, 申庠徹(聞慶郡守), 癸酉年 仲秋

1) 봉생정담장신축기 원문 및 해석

“鳳笙之峰特立於清流翠壁之中，江山秀麗景概絕勝 起亭於頂上 扁而鳳笙”

“봉생봉이 맑은 물과 푸른 벽에 홀로 솟아 있어, 강산의 수려한 경개와 명승을 이루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 정자를 세우고 봉생이라 이름 붙였다.”

2) 의미론적 해석

봉생정의 담장을 신축한 뒤에 지은 것으로, 맑은 물가에 우뚝 솟은 봉생봉(鳳笙峰)의 푸른 절벽에 서 있는 봉생정의 아름다운 경관을 봉황이 피리 부는 형상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별서의 중심인 봉생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 것을 노래한 것으로 보아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같이 해야 경승지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鳳笙亭重建記, 유단하(柳端夏, 서애 선생의 종 14대손)

### 1) 봉생정중건기 원문 및 해석

京路往來之際, 每到此, 心醉鎮南山水之勝, 輒休筇游踪於泉石, 窈窕之間 吟風弄月, 以紓行路之疲, 而心點藏修之所者矣. 先生歿後 門人愚伏鄭文莊公 承師之意 而棚亭

봉생정의 창건 유래를 밝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생이 서울을 왕래할 때, 매년 이곳에 도착하여 진남(鎮南)의 빼어난 산수에 심취하여 문득 지팡이를 놓고 발이 가는대로 자연에서 노닐며, 한가한 틈을 타서 음풍농월로 행로의 피로를 풀면서 마음속으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장소로 낙점하였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 문인 정문장공이 스승의 뜻을 계승하여 정자를 창건하였다.”

### 2) 의미론적 해석

1) 봉생정의 <봉생정중건기>에 의하면, 주로 봉생정이 영좌팔경(嶺左八景) 중 하나인 진남(鎮南)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서애 선생 사후에 제자에 의해서 지어졌으며, 선생의 생전에 서울을 오고가면서 산수자연을 음미하고 농월하며 은퇴 후에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장수(藏修)의 장소로 낙점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봉생정은 창건 유래에서 자연경관을 즐기면서도 학문에 전념하며 생활하는 공간이 바로 별서인 봉생정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경승지에 있었음으로 별서명승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도암정(陶巖亭) 시문 분석

### 1) 도암정기 원문 및 해석

陶巖一區, 吾金之世居也. 山之自文殊來者, 往往作結氣作局, 直數十里有川城縣. 自縣而南, 南者左, 西者右, 右即陶巖洞天也. 中有一支長岡, 逶迤齊整屏障於南北, 而層臺於上下, 上可坐數百人. 臺畔崛起, 虎脊龍頭, 大小石林立叢聚 巖頂削平, 傍有丈許石, 如負辟,

小兒攀緣可登 粵! 我八代祖 奉事府君, 初築亭臺, 以爲藏修之所. 六代祖 黃坡府君, 與從弟潭巖公, 訪道於山水之間, 棲心於煙霞之外, 起居飲食, 惟巖是愛, 而始起亭於巖下, 而名之陶巖亭. 蓋巖以陶名者, 以巖形圓, 而周有若大甕然也. 上有先祖手植之松, 名其臺曰松亭. 亭畔攀緣之石曰梯巖, 亭東特立者曰屏巖, 亭西側臥者曰隱巖, 又有龜巖·鼈巖·印石·盤石·濯纓巖, 皆在枉巖下, 而巖側鑿小沼曰映沼. 沼中築三峯曰花巖, 合而名之曰陶巖洞天. 南秀九峰, 西岬霞嶺, 遠眺則鶴駕, 暗拱則七峰澗, 通仙巖之瀑, 路轉琉璃之橋, 遂與遠近士友, 詩於斯, 酒於斯, 稷會於斯, 而當時如八吾軒·荷塘·蒼雪·龜翁·訥翁 諸丈席 有唱和詩軸, 會飲錄. 風流已古, 雲孫無似亭臺 俱廢而勝會莫追. 後來素巖金公爲會飲錄序, 手書跋其後. 今年春嗣葺舊亭於巖下. 先志也 經始於某日 告訖於某日, 繩墨規模, 惟取苟美, 迺與諸族人, 登堂而落之 曰昔 李德裕平泉木石求取於四方者, 而猶以追先志 戒其子孫, 而況吾金氏百年古庄. 陶巖亭臺, 壹是皆先躅, 蓋思所以肯構肯堂之義哉.

### 六代孫九翰謹記

도암 1구는 우리 김씨의 세거지이다. 문수산에서 내려온 산 기운이 종종 뭉쳐 형세를 이루고 곧장 수십 리를 뻗으면 천성현(川城縣)에 이른다. 현에서 남쪽, 남쪽은 좌측이고, 서쪽은 우측으로, 우측이 바로 도암동천(陶巖洞天)이다. 가운데에 긴 언덕이 남북으로 가지런히 병풍처럼 뻗어 있고, 위아래로 층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다. 층대의 경계가 불끈 솟아 있는데, 마치 호랑이 척추와 용의 머리와 같다. 크고 작은 돌이 숲처럼 총총히 서 있고, 바위의 꼭대기는 평평하게 깎여 있다. 그 옆으로 한 길 남짓의 돌이 마치 벽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어린 아이가 달려붙어 기어오를 수 있다. 아! 나의 8대조 봉사부군(奉事府君)이 처음 정대(亭臺)를 지어 수양의 장소로 삼았다. 6대조 황파부군(黃坡府君)이 사촌 동생인 담암공(潭巖公)과 산수로 도사를 찾아다니며, 아름다운 경치 밖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 유독 이 바위만은 좋아하여, 바위 아래에 비로소 정자를 짓고 도암정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마 바위(巖)를 질그릇(陶)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은, 바위의 모양이 둥글고 주변이 큰 항아리 같아서 일 것이다. 그 위에 선조가 직접 심은 소나무가 있어서 그 정대(亭臺)를 승정(松亭)이라고 불렀다. 정자의 언덕에 달려붙어 있는 돌을 사다리 바위(梯巖)이라고 하고, 정자의 동쪽에 우뚝 솟은 것은 병풍 바위(屏巖)라고 하며, 정자의 서쪽에 누워있는 것을 숨은 바위(隱巖)라고 하였고, 또한 거북바위(龜巖)·자리바위(鼈巖)·인석(印石)·반석(盤石)·탁영암(濯纓巖)이 모두 굽은 바위(枉巖) 아래에 있다. 그리고 바위 옆에 조그만 늪을 팠는데, 이것을 영소(映沼)라고 하였다. 늪 가운데에 세 봉우리를 쌓았고 이것을 꽃 섬(花巖)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합하여 도암동천(陶巖洞天)이라고 하였다. 남쪽에는 수구봉(秀九峰), 서쪽으로는 탁하령(岫霞嶺)이 있고, 멀리 보이는 것이 학가(鶴駕: 학 수레)이고, 조용히 안고 흐르는 것이 칠봉간(七峰澗: 칠봉계곡)으로 선암(仙巖) 폭포를 통과하여 길을 돌면 유리교(琉璃橋)이다. 마침내 원근에 사는 선비와 친구들과 더불어 여기서 시를 짓고, 여기서 술을 마시며, 여기서 수계(修禊)를 개최하였으니, 당시 팔오현(八吾軒 金聲久 1641~1707)·하당(荷



塘 權斗寅) · 창설(蒼雪 權斗經 1654~1726) · 구옹(龜翁) · 눌은(訥翁, 訥隱 李光庭 1674~1759) 등 여러 참석자들이 노래한 시 축과 회음(會飲錄)이 남아 있다. 풍류는 이미 옛 것이 되어버렸고 후손들은 정대(亭臺) 비슷한 것도 없이 모두 무너졌고 아회도 따라갈 수 없다. 나중에 소아(素巖) 김공(金公, 金鎮東)이 <회음록서 會飲錄序>를 짓고 직접 그 끝에 발문을 썼다. 금년 봄 비위 아래 옛 정자를 보수하니, 선대의 뜻이다. 모일에 시작하여 모일에 끝이 났다. 법도와 규모는 그럭저럭 아름다움을 취했을 뿐이다. 이에 여러 친척들과 함께 이 정자에 올라 낙성식을 하고 말하길 “옛날 이덕유(李德裕: 당나라 시인)는 평천장(平泉莊)을 지으면서 나무와 돌을 사방에서 구했는데, 이것은 선대의 뜻을 계승하고 자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으니, 하물며 우리 김씨 백년 옛 집에 있어서라.” 라고 하였다. 도암정은 모두 선대의 발자취이니, 이를 계승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2) 의미론적 해석

(1) 이상의 <도암정기(陶巖亭記)>을 통해, 이 정자는 이 글을 쓴 김구한(金九翰)의 8대조인 봉사부군(奉事府君)이 처음 지어 수양의 공간(藏修之所)으로 삼았다가, 6대조인 황파부군(黃坡府君)인 김중걸과 그의 사촌인 담암공(潭巖公)이 함께 중수하고 ‘도암정’이라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정자를 중심으로 도암동천(陶巖洞天)을 만들었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경관으로는 사다리바위(梯巖), 병풍바위(屏巖), 숨은바위(隱巖), 거북바위(龜巖) · 자라바위(鼈巖) · 인석(印石) · 반석(盤石) · 탁영암(潛纓巖), 굽은바위(枉巖), 영소(映沼), 꽃 섬(花嶼)등을 소재로 하였다.

(2) 이 정자에는 숙종(肅宗) 연간 갑신년(甲申年 1704)과 을유년(乙酉年 1705)에 아회(雅會)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는 팔오현(八吾軒 金聲久) · 하당(荷塘 權斗寅) · 창설(蒼雪 權斗經) · 구옹(龜翁) · 눌은(訥隱 李光庭) 등이라고 하였다. 김중걸의 《黃坡集》 별부록 (松亭會飲錄 甲申)에는 갑신년 아회에 참여한 47명의 명단, 그리고 <松亭續會錄 乙酉>에는 을유년 아회에 참여한 46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3) ‘陶巖亭’ 편액은 해행체로 도암정의 중간 마루 천장에 달려 있으며, 활달하고 단정하며 기운이 장중한 명작이다. ‘陶巖’은 바위의 모양이 둥글고 주변이 큰 향아리 같은 모양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이 정자를 ‘松亭’이라고도 하는데, 도암정 옆에 김씨의 선조가 직접 심은 소나무가 있어서 그 정대(亭臺)를 송정(松亭)이라고 불렀다.<陶巖亭記> 上有先祖手植之松, 名其臺曰松亭 이 정자에서 인근의 사대부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수계(修稷)를 개최하여 시문을 짓고 술을 마시며 노닐었다는 사실이 <陶巖亭記>와 <松亭會飲日呼韻賦五七言三絕謹呈兪座求和> <松亭會飲錄後序> 3개의 편액에 나타나 있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도암정이 단순히 경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시연회도 베풀며 공유한 별서의 중심공간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별서명승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서, 별서 및 명승의 정의를 먼저 제시한 후,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의 학천정과 마성면의 봉생정, 봉화읍 도암정에 걸려 있는 정자기 및 시문을 번역하여, 별서가 별서명승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근거와 이유, 당위성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여기에서도 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법상 명승의 개념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건물에 있는 경승지 또는 이름난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으로서, 심미적, 고유성, 희귀성, 특수성을 보유하는 것 외에 예술적 가치가 있으면서 인간의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 문화유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치도 중요하지만, 대상지의 담겨진 삶의 기록 (Story Telling)인 역사자원을 발굴해 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명승에 대한 지정 기준은 자연경관, 저명한 경치가 있는 동식물군락지, 경관조망점,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 · 교육 · 생활 · 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등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하천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명승 개념의 의도를 잘 살려 생활명승으로서의 별서명승의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 사례 중 일본의 경우, 별서 및 주택정원을 명승으로 196개소나 지정하여 전체 명승 355개의 55.4%에 달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생활공간 명승지정사례에 대한 법규 및 제도, 지정 기준들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명승지정에 원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명한 건물이나 중요 사적 및 민속자료 등이 포함된 대단위 경관지역은 우리도 복합문화명승이나 특별명승과 같은 개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적이나 중요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된 정원, 원지 중에서 명승으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궁남지, 포석정, 서출지, 계림, 선교장 활래정, 함안 무기연당, 화순 임대정, 양산의 소한정, 대전 남간정사 및 옥류각, 괴산의 암서재, 영동의 한천정사, 종로의 석파정 등 대상문화재의 명승으로의 문화재 지정 종별 분류작업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생활명승이면서, 경치가 아름다운 별서정원의 명승 지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전국의 현존하는 정자는 1,500여 개 되며, 이들 정자들은 경승지에 선비들이 은일하며, 학문을 했던 별서의 중심공간으로서, 작정자가 분명하고 행장기록이 있어 국민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창출하여 홍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경우 명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별서정원에서 경치가 아름다운 조망점의 경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승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별서정원의 경우 조망점이 우수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 아직 조망점이 좋은 대상지를 명승으로 지정한 경우가 양양 하조대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인용문헌

1.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국제학술심포지엄 (명승의 현황과 전망)학술

- 대회집, 명승의 개념 및 분류체계논의(이재근). pp386-400.
2. 김지혜(2006). 우리나라 명승지정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중·일·북한과의 비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문화재의 지정 기준 제2조(별표1) (개정2007.11.22). 법제처
  4. 문화재청(2009). 2009전국별서정원 명승자원지정조사보고서. pp.168-214.
  5. 한국전통조경학회(2009). 동양조경문화사. 도서출판 대가.

원고접수: 2009년 12월 14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3월 20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